

세계적 IT 전시회, 한국전자전(KES)

국내 최대의 IT, 디지털 전자전시회인 한국전자전이 세계 전자업체가 주목하는 IT산업박람회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36회를 맞는 한국전자전에는 벌써부터 세계 톱클래스 전자업체와 다국적 기업들, 해외바이어들 그리고 관련기관들의 전시관설치, 수출입 상담을 위한 자료요청 등이 물려들고 있다. 특히 올 전시회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받아들여 전시장을 경기도 고양 한국국제전시장(KINTEX)으로 옮겨 제2도약을 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본회 이갑렬 부회장을 비롯한 전시팀원들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디지털 전시회인 CES에 참가해 한국전자전 로드쇼 행사를 가져 세계 전자업체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부회장은 로드쇼에 참석한 ABC방송 등 외국기자와 해외 기업인들에게 “올 한국전자전(KES)은 규모와 내용면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 부회장은 이밖에 게리 사피로 미국 가전협회장을 만나 KES전시회에 미국관을 개설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하였다.

올 전시회는 주제인 NEW START (North-East Asia &

성과전망

구분	2004년	2005년	증가율(%)
전시면적(㎡)	25,101	32,157	28.1
국내	305	400	31.1
참가업체(개사)	145	200	37.9
해외	450	600	33.3
계	1,100	1,400	27.3
참가부스	49,000	65,000	32.4
국내	2,600	3,500	34.6
해외	51,700	68,500	32.5
계	1,930	2,500	29.5
수출상담 및 계약(백만불)	1,930	2,500	29.5
상담액	181	250	38.1
계약액			



the World, State-of-the-Art Technology and Road to Tomorrow)가 의미하듯 한국이 지리적 그리고 첨단 IT분야에서의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게 전시회 내용을 꾸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국내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미국(라스베가스, 2005.1, CES 연계), 중국(상하이, 2005.4), 일본(도쿄, 2005.5) 등 세차례의 해외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총 13회에 걸친 CeBIT등 세계적 IT전시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2005 KES의 전시면적도 KINTEX에서의 개최로 기존 개최장소인 COEX의 스페이스 부족이 해결되어 총 32,157㎡로 전년대비 28.1% 상향조정될 예정이며, 이에따라 buyer를 포함한 참관 객수도 68,500여 명으로 32.5% 증가 그리고 수출상담액 및 계약액도 각기 29.5% 및 38.1% 증가한 25억불 및 2억 5,000만불로 추정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윤 회장 취임 이후 진흥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며 “세빛 기간에도 현지에서 로드쇼를 개최해 한국 전자산업의 위상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본회는 최근 협회 CI를 ‘KEA(Korea Electronics Association)’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Electronic’이라는 개념이 정보가전시대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상황과 맞지 않아 이에 걸맞은 ‘Electronics’로 바꾸었다.

[출처: 본회 전시사업팀]

특허 CEO 포럼 출범, 신라호텔서 창립간담회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자제품 특허분쟁 현안에 대해 업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국내 전자업계 최고경영자들은 9일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김종갑 특허청장과 본회 윤종용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최초로 “특허 CEO 포럼”을 창립하고 특허문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등 본격 활동에 착수하였다.

이번 포럼은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특허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발족돼 주목을 받고 있다.

9일 창립행사(신라호텔, 오전 10시)는 본회 주최로 개최됐으며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문식 이레전자 사장 등 국내 전자업계 대·중소기업 경영자 50여명과 특허정보원·대한변리사회 등 특허 유관기관 대표도 함께 참석하였다.

전자업계 특허 CEO 포럼은 본회내에 설립 특허지원센터에 사무국을 두고 특허분쟁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기업의 특허 관련 애로 발굴 및 해결, 특허관련 정보 교환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며, 전자업계의 특허인식 제고 및 특허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세미나·워크샵 등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전체 수출의 40%를 담당하고 연간 수출 1,000억불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핵심 주력산업”이라면서 “이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추종자가 아니라 기술선도자로 우뚝 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만이 특허경쟁에서 승리하고 기술선도자가 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역설하였다.

산자부 이관섭 디지털전자산업과장은 “전자업계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특허 컨설팅 서비스 제공, 특허지원센터 설립 지원, 특허거래 및 활용촉진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출처: 본회 특허지원센터]

혁신적 조직 개편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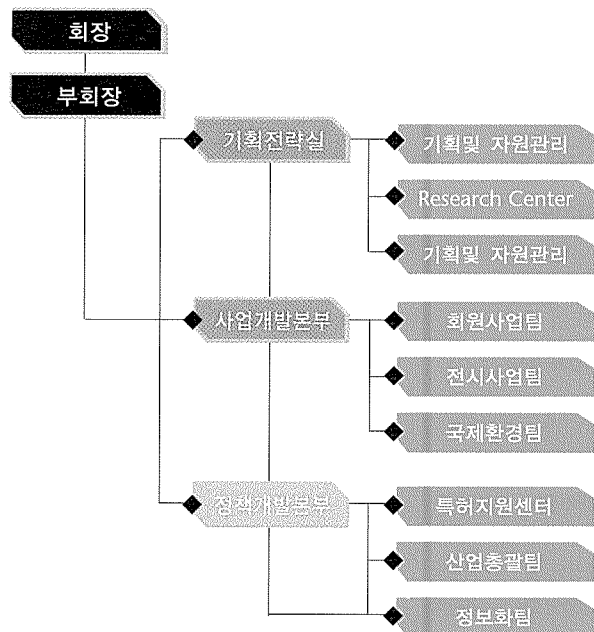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지난 12월 1일 선택과 집중, 경쟁과 보상체제 도입으로 회원사들에 대한 서비스 극대화를 목표로하는 혁신적인 조직재편을 단행하였다.

조직체계의 재정비를 위해 겸직제와 1인 다기능화로 업무영역 확대 원칙하에 기획전략실, 사업개발본부, 정책개발본부의 3본부체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인적쇄신 및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신조직문화를 창출하며 구조조정 정례화를 통한 슬림화와 특허, 환경, 전자 리서치센터의 업무 등 새로운 전문인력을 보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경쟁과 보상체제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며, 보직응모 선발제, 연봉제 등의 조직운영의 시스템화할 예정이다.

[출처: 본회 기획 및 자원관리]



10개 해외전시회 한국공동관 운영계획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회는 금년도에 CeBit Hannover 등 10개 해외전시회 한국공동관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총 246개 한국 IT/디지털·전자사들이 금년도 진흥회의 해외전시 프로그램에 참가해 총20억불의 상담액 및 4억불의 계약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공동관 참가기업들은 산업자원부 등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 외에 진흥회 전시전문인력의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2005년 해외전시회 추진 현황

월별	전시회명	모집 현황	전시기간	개최국/도시	전시품목	담당자 (553-0941+내선번호)
3월	하노버 정보통신 박람회 (CeBIT Hannover)	모집 완료	2005. 3. 10 ~ 3. 16	독일 하노버	정보통신기기 및 시스템, 네트워크, 디지털가전 등 IT관련 전반	안준일과장(323) 장일주대리(325)
4월	중국소싱페어 (China Sourcing Fair)	모집중	2005. 4. 12 ~ 4. 14	중국 상하이	정보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디지털가전 등	장광래과장(324)
	상해 전자부품 및 기자재전 (Nepcon Shanghai)	모집중	2005. 4. 12 ~ 4. 15	중국 상하이	전자부품, 생산 및 검사장비 등	박순길과장(322)
5월	버밍햄 국제 보안기기전 (IFSEC)	모집중	2005. 5. 16 ~ 5. 19	영국 버밍햄	DVR, CCTV, PC기반 보안기기 및 솔루션, 생체인식시스템 등 보안장비 전반	임호기차장(321) 장일주대리(324)
	런던 케이블/방송장비전 (MEDIACAST)	모집 예정	2005. 5. 24 ~ 5. 26	영국 런던	케이블 장비 및 디지털셋톱박스 등 방송장비 전반	장광래과장(324)
6월	대만 국제컴퓨터 박람회 (COMPUTEX)	모집 예정	2005. 5. 31 ~ 6. 4	대만 타이페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등 IT관련 전반	장일주대리(325)
	인포컴 국제 박람회 (INFOCOMM)	모집 예정	2005. 6. 8 ~ 6. 10	미국 라스베가스	디스플레이, A/V기기 전반	안준일과장(323)
8월	베트남 전자/정보통신박람회 (ICT VIETNAM)	모집 예정	2005. 8. 12 ~ 8. 15	베트남 호치민	정보통신, 가용전자, A/V기기 등 전반	장일주대리(325)
9월	베를린 오디오,비디오,매스 미디어박람회(IFA)	모집 예정	2005. 9. 2 ~ 9. 7	독일 베를린	디지털가전, A/V기기, 정보통신제품 전반	박순길과장(322) 장일주대리(325)
11월	상해전자전 (AEES)	모집 예정	2005. 11. 22 ~ 11. 24	중국 상하이	정보통신기기 및 시스템, 네트워크, 디지털가전, 전자부품 등 IT관련 전반	안준일과장(323)
합계(10개)						

